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기술로 승화

지엠펜, Digital Print Proofing Solution 선보여

국내외의 높은 관심속에 지난달 3월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Korea Pack 2006은 원활한 행사진행과 풍성한 볼거리, 그리고 유익한 세미나로 참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써멀 라미네이팅기 전문 제조업체인 (주)지엠펜은 이번 행사에서 써멀라미시스템 세미나를 개최, 신기술 'Digital Proofing Solution' 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는 디지털 토너 방식으로 인쇄된 출력물을 지류는 물론 천, 금속판, 플라스틱 시트와 필름에 이르기까지 100% 전사가 가능토록 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디자이너가 출력소를 오가지 않고도 직접 자신의 결과물을 출력해 볼 수 있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품종 소량인쇄 품질향상을 이뤄

(주)지엠펜(대표이사 김양평, www.zepp.com).

Proofing System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양평 대표이사





GMP의 다양한 작업물들과 Korea Pack 2006 전시장에 마련된 지엠피 부스

gmp.co.kr)에서 새롭게 소개한 'Digital Print Proofing Solution'은 기존의 써멀 라미네이팅 기술을 기반으로 디자이너들이 사무실에서 간단히 시안제작과 샘플 출력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고안되었다.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사무실에서 손쉽게 교정지와 다름없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번거롭게 출력소를 오가던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으로 시안을 보면서 수정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금박, 은박, 표면광택, 홀로그램, 엠보싱, 라미네이팅 등의 다양한 특수 효과를 표현할 수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품종 소량 인쇄에 새로운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사를 이용한 고품질 인쇄

써멀 라미네이팅 기술의 핵심은 전사라고 할 수 있다. 작업과정은 간단히 종이에 프린트된 컬러 인쇄물을 특수필름에 옮기고 다시 다양한 재질에 옮기는 방식이다. 크게 두 번의 옮겨지는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특수 제작된 필름'과 적정하고 고른 열을 전해주는 '핫 롤러 파우치 라미네이터'이다.

<작업과정>

종이 인쇄물 → PROOFER → 필름에 전사 → PROOFER → 종이, 천,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인쇄

디지털 토너 프린터를 통해 인쇄된 내용물은 '특수 제작된 필름'과 함께 'PROOFER'를 통과하게 되고, 인쇄된 내용은 높은 열(120℃)에 의해 토너가 필름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서 'PROOFER'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냉

각시스템에 의해 필름 위에 토너가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인쇄하고자 하는 재질(종이, 천, 금속 등 기타) 위에 필름을 얹고, 다시금 'PROOFER'를 통과시키면 필름 위에 있는 토너가 그 위에 그대로 전사된다.

획기적인 신개념 솔루션, Proofing Solution

기존 디지털 토너 프린터는 개발된 지 오래되었으나 종이 두께와 규격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반기업이나 디자인 기획사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에는 고품질 인쇄를 할 경우 후작업 등으로 공정이 번거로웠고, 종이 재질에 따른 제약이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단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DDPS (Digital Print Proofing Solution)이다. 이는 디지털 인쇄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고, 전사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질이나 색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했다. 다시 말해 상업인쇄 이전에 신속한 샘플 제작 및 실제 인쇄하고자 하는 제품에 근접한 시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DDPS는 인쇄된 작업물 위에 금박, 은박, 홀로그램, 엠보싱, 라미네이팅 등의 효과를 손쉽게 낼 수 있는데, 사용되는 필름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작업방식은 위의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 Proofing에 사용되는 라미네이팅 기계는 최대 2.2m폭, 500mm두께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지엠피의 Micronex 필름을 이용하면 금·은지는 물론 유광·무광 오버코팅도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